이긴자 일대기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48회〉

작은 것에 지면 큰 것도 지게 된다는 삶의 지혜 터득

9절: 감사하는 생활
1) 11년의 군생활 마감과 점점 가혹해지는 연단
2) 사업을 시작하다
3) 이끄심을 받으며 은혜를 숨기는 생활
4) 영의 흐름을 깨닫다
5) 육적으로도 당할 자가 없어
6) 생활 전반이 신앙으로 매진

2) 사업을 시작하다

(지난호에 이어서)

처음에는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종로5가에 가게를 차리고 우선 자전거를 잘 타는 청년을 고용하여 서울 시내로 콜라, 사이다를 팔기 위해 나갔습니다. 어느 주류 도매상회에 가서 "시온 콜라, 사이다를 좀 팔아보시지요. 맛이 좋고 품질도 좋습니다."며 판촉을 하였는데 주인이 콜라를 보더니 "이 새끼야, 이렇게 시커먼 것이 둥둥 뜨는 것을 사람 먹으라고 만들어서 상품이라고 팔러 다니는 거야!" 하면서 따귀를 갈기고 면박을 주며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일곱째 천사는 죄송하다며 90도 각도로 절을 하면서 속으로는 '나 같은 마귀새끼는 이런 일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자신을 고소하게 생각을 하고,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며 판촉을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그 매 맞은 집엘 가겠다고 하자 짐자전거를 타는 고용인 청년은 "전도사님,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가면 또 맞을 텐데요."라고 하니, "너는 내가 고용한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내가 앞장 설 테니 잔말 말고 뒤에 따라와!" 하고 그 주류도매상으로 향했습니다. 고용인 청년은 뒤에 쳐져도 한참 쳐져서 저 멀리서 자전거를 끌면서 슬금슬금 따라 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집은 두 번 다시 가지 않겠지만 일곱째 천사는 '나'라는 것이 '개 같은 마귀새끼'인 것을 아는 고로 '너는 더 천대를 받아야 마땅해. 가서 더 수모를 받아라. 이 마귀새끼야.' 하고 마음의 싸움을 하면서 매 맞은 집으로 다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제 일곱째 천사를 때린 주인아저씨는 반색을 하며 반가이 맞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자기도 자전거를 타고 장사를 다닌 시절이 있다는 그 아저씨는 젊은 청년이 먹고 살겠다고 장사하러 온 것을 안사면 될 터인데 괜히 사람을 때리고 구박까지 했다며 지난 밤에 마음이 아파 잠을 못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곱째 천사는 "괜찮습니다. 신앙촌 콜라가 보기는 이래도 맛은 좋습니다. 한번 잡수어보세요." 하면서 병뚜껑을 따서 맛을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어제의 그 기세등등했던 사람은 미안했던지 콜라를 받아서 병 채로 단숨에 꿀꺽꿀꺽 마시더니, "야! 맛이 기가 막히군. 젊은 친구가 장사를 해서 먹고 살겠다는데 어제는 내가 성질이 못돼서 때리기까지 했는데, 그에 대한 사과로 이 콜라를 팔아 줄 테니, 우선 몇 상자만 가져오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일곱째 천사는 "사장님, 이렇게 큰 도매상에서 몇 상자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트럭 정도는 하셔야지요."라고 하여 한 트럭의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후부터 차떼기로 판매가 되었으며 점점 판매망이 넓어지면서 기존의 널리 알려진 칠성콜라와 사이다의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칠성회사 측에서 사람을 보내어 일곱째 천사를 스카우트하려고 보수는 원하는 대로 줄 테니 칠성에 와서 일 좀 해 달라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는 "내가 돈에 눈이 어두워 시온 콜라 사이다를 그만두고 칠성 콜라 사이다를 하게 되면 나는 배신자가 됩니다. 나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 짓은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칠성에서 온 그 사람은 "요새에도 선생님 같은 분이 있다니 정말 감격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포 고향에서 농사짓던 친구에게 앞길을 열어주다

일곱째 천사는 제과점만 하고 다방은 칠성에 양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에 일곱째 천사는 칠성 측에, "나는 별로 실력이 없고 내 친구 중에 유능한 사람이 있다."며 친구를 소개하여 취직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두병찬' 이라는 친구인데 일곱째 천사가 중학시절 고학을 하면서도 세 학생의 학비를 대주며 공부를 시켰던 세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일곱째 천사와 같은 김포 고향에서 농사만 짓고 있었는데, 일곱째 천사께서 친구의 장래를 생각하여 친구에게 "자네, 칠성사이다 회사에 취직하고 싶지 않아?" 물으니, 그 친구는 "취직만 된다면 하지." 그래서 일곱째 천사의 소개로 칠성사이다 회사에 취직이 되는 당일로 곧바로 공장관리자의 높은 직책을 맡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친구가 중학교만 나온고로, 일곱째 천사가 직접 친구를 데리고 고등학교 교장을 찾아뵙고, "이 사람이 나이는 많지만 배우고자하는 열의가 강해서 고등학교 교과를 마치고자 하니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니, 교장 선생님이 쾌히 승낙하여 야간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야간고등학교를 마치고 스스로 대학까지 야학을 해서 마쳤습니다. 나중에 일곱째 천사가 구세주 이긴자가 되시어 영생의 역사를 하실 때, 남모르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칠성코라_60년대 광고

일곱째 천사는 서울시내에서 신앙촌 콜라 사업을 하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소사 신앙촌에서 예배도 못 보게 하는 멸시천대를 받았는데, 그당시 최수영 전도사가 남대문 제단에 계실 때는 남대문 제단으로 예배를 보러 갔으며 중부 제단으로 발령을 받고 가면 중부 제단으로 예배를 보러 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아 주지 않는데 최수영 전도사는 일곱째 천사를 받아 주었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추호도 욕심이 없었으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생활로 일관했으며 틈만 있으면 기울이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늘 은혜 창파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그 은혜를 쏟지 않고 간직하기 위해, 소사 신앙촌에서 서울역까지 약 40리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서 거기서 또 중부제단까지 걸어가곤 했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걸어서 그렇게 갔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차를 타고 온 것처럼 속였던 것입니다.

최수영 전도사가 중부제단에서 세검정 제단으로 이동되어 갔을 때부터, 일곱째 천사는 새벽기도를 갈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버스하고 경쟁을 하면서 달리지만 항상 버스를 제치고 달렸고 다른 차한테 뒤지거나 져 본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새벽녘에 차가 뜸해서 그렇지 지금처럼 차가 많았으면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한번은 오토바이를 타고 덕소 쪽에 가다가 다리 난간에 부딪치어 다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리가 상당히 높았는데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겁이 나서 오토바이를 타지 않게 될 것인데, 그렇게 사고를 당한 그 다음 날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이렇게 겁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back)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해주고 하나님이 그 오토바이를 타도 사고를 나지 않게끔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일곱째 천사는 속력을 있는 대로 놓은 것입니다. 최수영 전도사가 세검정 전도관에서 도봉동 전도관으로 이동하였을 때에도 일곱째 천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봉동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일곱째 천사는 오토바이를 타도 100% 믿고 달렸고 자전거를 타도 100% 믿고 달렸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자전거를 타도 버스를 따라 놨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아도 버스를 따라 놓을 정도로 밟았으며 매사에 이렇게 이기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째 천사는 평생을 살면서 무엇을 해도 지고는 못사는 성품이었습니다. 보통 세상살이를 할 때에 조그마한 것을 지게 되면 큰 것도 지게 된다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 이끄심을 받으며 은혜를 숨기는 생활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의 기막힌 사정을 알고는 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스를 타도 눈물이 흐르는 고로 옆 좌석에 앉은 손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어 항상 버스를 탈 때는 맨 앞쪽 운전석 맞은 편의 좌석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수까지도 "필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모양인데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그만 우세요." 하고 권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할 수 없이 버스에서 내려 걸어서 목적지까지 가곤 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다니다가도 하나님의 곤고하신 사정과 감사함의 은혜가 사무쳐 뼛골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는 근처 다방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나오세요. 손님이 기다립니다."하고 다방 레지가 문을 두드려서 나오면 "아니, 또 이 아저씨네....." 하고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또 다른 다방 화장실로 옮겨가서 울었는데, 들어갔던 다방에 가면 "이 아저씨 또 온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대문로 중구 필동을 통하여 남산으로 올라가 숲이 많이 우거져 인기척이 없는 곳을 찾아 거기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다가 내려오곤 하였던 것입니다.(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新金剛經解說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25〉

이상적멸분(離相寂滅分) 第十四

그러면 석존은 왜 미륵부처님께 귀의하는 사람이 대단히 드문 공덕을 얻을 것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석존께서 3000여년 전에 벌써 설하신 불교의 종지가 생로병사(生老病死)에서 벗어나 일체중생이 모두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인류가 갈구하던 영생의 법을 설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법을 듣고 깨닫는 이가 지금까지 인류가 소망하던 영생의 복, 즉 불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견과 아상을 떠난 마음_(2)

世尊 是實相者 卽是非相
세존 시실상자 즉시비상
是故如來說名實相
시고여래설명실상
世尊 我今得聞如是經典
세존 아금득문여시경전
信解受持 不足爲難
신해수지 부족위난
若當來世後五百歲 其有衆生得聞是經
약당내세후오백세 기유중생득문시경
信解受持 是人卽爲第一希有
신해수지 시인즉위제일희유

세존이시여, 이런 사실의 모습(석존이 부처모습)이라 함은 곧 (부처의) 모습(相)이 아닌 것을 여래(석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제 모습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어 알고 받아 지니는 것은 족히 어려울 것이 없지만, 만약 돌아오는 세상에 후오백년(後五百年=3000년)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서 믿어 알고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바로 제일가는 (복과 덕을 갖춘) 매우 드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해석] 그래서 수보리는 석존의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이제는 의혹이 없지만, 다가오는 세상의 사람들이 과연 이 같은 말을 얼마나 믿을 것이며, 또 이같이 석존이 부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서 안다면 미륵부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기가 쉬우므로 미륵부처님을 만나면 성불할 수 있는 최상승의 법문을 듣고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이 되기에 수보리는 이런 사람이 참으로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석존이 수보리에게 언제이 말씀의 진실이 밝혀지겠는가에 대해 비밀하게 알려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수보리는 "만약 돌아오는 세상에 후오백년(後五百歲)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단어 때문에 현재의 불교를 가르치고 수행한다고 하는 스님들이나 불교를 배우는 분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우도_ 기우귀가(騎牛歸家)

즉 이 금강경의 《제6 정신희유분(正信希有分)》에서 석존이 후오백세(後五百歲)에 대해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말하는 후오백년도 그와 같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한국불교에서 쓰이는 불기(佛紀)인 남방불기(南方佛紀)는 2563년을 말하고 있지만 능엄경에서 밝혔듯이 한국의 불기는 벌써 3000년이 훨씬 넘고 있으며, 혹자는 인도의 관습상 숫자의 개념에 대해 밝지 못하기에 어느 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하고, 또 다른 분은 영국에서 인도를 통치하는 가운데 찾아낸 사료로 불교를 연구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영국과 한국의 불교는 그 연구하고 정진하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불상(佛像)의 유래▶ 2019년은 불기(佛紀) 3,046년이된다 "석가세존은 昭王(소왕) 26년 갑인(BC 1,027년) 4월 8일 탄강하시고 그 후 1천년이 지난 後漢(후한) 明帝(명제) 영평 3년 경신(서기 60년)에 조선(진단국)의 중생들과 인연이 닿아 또 다시 자상에 재림(再臨)하셨습니다. 〈석보상절 제6〉 세존께서 象頭山(상두산)으로 가시여 용과 귀신을 위하여 설법하실 때 부처님의 나이는 32세이었으며 穆王(목왕) 6년 을유(BC 996)년이었다. 부처님의 아들 羅雲(나운)이 출가할 때 부처님의 연세는 33세이고 목왕 7년 병술(BC 997년)이였다." _ 출처: https://cafe.naver.com/woojesunwon/2201 우제선원(신선좌공도,의통공부방) |작성자 혜산]

영국은 인도를 200여년 가까이 식민통치를 하고 그 와중에 인도의 불교의 사료를 획득했다지만, 현재 인도라는 큰 나라로 통일된 것은 근세에 영국의 통치로 인한 것이며 실제 석존 당시부터 그 뒤 3000여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인도라는 대륙에는 수많은 나라가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말씀 그대로 전쟁의 역사를 치르어 온 나라며, 그로 인해 인도 전역에 있던 불교 사원은 계속 파괴와 약탈에 의해 불교의 경전이 온전하게 관리되지 못했고, 또한 석존 당시부터 지금까지 거의 국교(國敎)와 같이 된 힌두교 역시 불교에 대해 직 · 간접적으로 박해를 하고 불교사원을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불교는 중국이라는 대륙을 통해 한반도에 전래된 것이 학자들은 불과 1300여년이라고 하지만, 실제 왕족들의 왕족불교가 되기 이전 벌써 민간 신앙 속에 불교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더 오래 전에 이미 불교가 들어왔으며, 또한 한국의 불교는 영국이나 인도에서처럼 단순 연구 종교가 아닌 바로 삶의 신앙과 체험신앙 그리고 수련신앙으로 장구한 세월을 이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치로 볼 때 영국이나 인도에서 연구하는 불교와는 근본적으로 그 믿음과 방대한 경전의 보유 또한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영국이 인도를 식민통치 하면서 얻은 불교 자료는 불과 얼마 안 되는 불교 자료이지만, 위에서 밝힌 대로 한국은 세계에서 자랑으로 꼽는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이 온전하게 전하여 내려오고 있답니다.

바로 이 대장경을 근간으로 하여 일본(日本)에서는 신수대장경(新修大藏經)을 만들었고 한국의 불교가 기복불교(祈福佛敎)로 흘러갈 때 일본은 신수대장경을 전산화하여 사실상의 세계 표준 대장경으로 안치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영국은 겨우 불교의 겉모양만 보았지 실제 불교가 뭔지를 모르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한국 불교 역시 다름이 없는 것은 석존의 경전을 조작하고 왜곡하여 대중에게 거짓의 조작된 경전을 보여 주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지금의 불교가 석존의 경전을 조작하고 있다면 참다운 불교가 아닌 석존의 불교를 흉내를 낸 사이비(似而非)의 불교가 된 것입니다.*

明鍾